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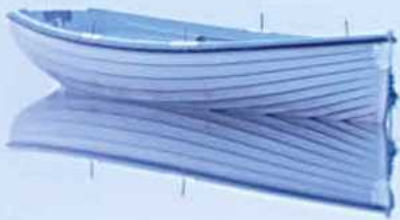
행복한 삶을 위한 근원적 치유의 이야기

나를 살리는 비밀을 소유하라

Possess the mystery of saving myself

서울렘넌트교회 담임목사

이장희



나를 살리는
치유의 비밀을
소유하게 하소서

본문말씀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

서론 | 영적환경 정리(영적상태를 바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행위 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고 또, 복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응답의 개념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한 주 동안 인도를 받는 가운데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집회 참여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개인이 안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구원도 받았고, 복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한 해 두 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주일 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맞다, 그렇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가면은 안 되어지고, 또 내 삶에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삶에 이원론적인 삶으로 신앙과 삶이 따로 이렇게 놓고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아예 그냥 이것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것이 팽배하게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또, 인도를

받는 가운데 제가 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니까 내 삶에 영적 환경을 정리해야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규모를 만들어 놓으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니까 내 삶에 영적 환경 정리를 하자. 그래서 내 영적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규모를 만들자.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내 삶에 만들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내 삶에 돌아가면은 그 안 되어지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1. 틀린 집중

왜 내 삶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잘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자꾸 틀린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삶에 돌아가면 지난 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일하시면 함께 일하고, 주님이 쉬면 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응답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멋대로 하는 게 체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인 자리를 내가 자꾸 차고 들어가 가지고 내가 자꾸 뭘 할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온통 내 하는 생각

이나 관심이나 방향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4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램넛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희들 공부 왜 하나? 경쟁하기 위한 공부, 성공하기 위한 공부, 그것 아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램넛트의 정체성이다. 공부는, 그냥 경쟁해가지고 무슨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가 성공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진다고 분명히 귀에 따까리가 맞도록 계속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요, 살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뭘 살려야 됩니까? 영이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살리는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뭘가 경쟁해서 누구를 죽이고, 그 위에 올라서고 이게 아니고, 살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정체성이 살리는 것임을 모르고 자꾸 틀린 집중을 통해서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틀린 집중에는 자꾸 부담 됩니다. 현실이 가면 갈수록 부담돼요. 또, 교회 와가지고도, 틀린 집중하면요, 교회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내가 맡은 일들이 자꾸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니 순간순간마다 오판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간순간마다 다른 길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보시면서요, 이

제는 우리가 틀린 집중에서 나와서 바른 집중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바른 집중

그 바른 집중이 뭘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내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는 거요. 저는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거기서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목회도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도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다 살리게 되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뭘니까? 집중을 바꿔라.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통을 해라. 이걸로 내 삶에 영적 환경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 환경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 환경정리라니 눈에 보이는 것, 치우고 청소하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 정리. 그건 뭐냐 하니까 잡다하고 복잡하고 그런 내 모든 육신적인 것 다 내려놓고,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비밀을 회복해라. 그래서 그 비밀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6장 31절,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좀 인생 단순하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뭘 먹을까 마실

까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정체성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뭘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영혼구원입니다. 그의 의는 뭘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먼저 나부터 살리고, 세계복음화로 인하여 영혼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해라. 여러분들, 삶에요, 생각전환하세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애 빠지지 말고, 그것은 뒤로 좀 미루고,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나부터 살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살리는 생각해라. 그리스도로 나를 먼저 살려라. 그리고 영혼구원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라. 그리고 저 사람도 살려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족 바라보면서도,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생각 바뀌야 됩니다. 살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살리는 생각이 성령충만입니다. 살리는 생각에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영적 환경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전부 다 살리는 생각으로 다 바꿔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살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뭘니까? 영의 생각해라. 그래서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방법이 뭘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고 영적인 환경정리를 하십시오. 잡다하고 복잡한 생각, 전부 다 멈추고 내려놓고 다 버리고.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 다 그냥 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져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의지해서 열심과 의로 달려가지 마세요. 어느 한 순간에 한계 오고 무너집니다. 그러지 말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세요. 그래야 내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뭘니까? 내 삶에 영적 환경정리, 생각을 전환해라.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 또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180도 갱신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바른 영적상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영적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상태가 곧 응답입니다. 내 영적상태가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 영적상태가 하나님의 살

리는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상태가 준비되어질 때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 또,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생각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3오늘에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3오늘은 임마누엘입니다. 3오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 3오늘이 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고, 3오늘인데,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가장 우선을 뭐로 해야 되냐?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가지고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학생은 학교에 가고, 또, 수업이 있고, 어떤 선생님 만나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또, 점심 때 누구와 약속이 있고,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직장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바쁜 일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나의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시켜라. 이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작입니다. 일단은 생각 자체를 전도로 바꿔버리세요.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전도로 바꾸면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은 전도대상자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구원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전도와 관계있는 것이다. 이게 살리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오늘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을 마음에 담고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생각해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

게 합니까? 그 전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 강단의 말씀, 그 강단의 말씀에서 나오는 성경구절, 아니면 그 강단의 말씀에서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인상에 남는 것, 내 기억에 남는 것, 또, 오늘 기도수첩을 읽다가 그 성경구절, 또, 그 글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내 나름대로 붙잡혀지는 것, 그리고 아침기도회에 교역자들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담기는 것. 그것을 보고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니까?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저는요, 이 영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책도 쓰고, 책도 내고 이르지 않습니까? 저는 뭐가 이렇게 하나 작품이 완성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까지 그 과정을, 완성품의 과정을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거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충 생각해버리면 많은 것을 놓쳐버려요. 당장에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12년 전에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도 그 안에서 제가 정리한 게 뭐냐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짧은 시간에 지나가면서 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시다. 그걸로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제가 하는 목회,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몇 천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영감이 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루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그것을 기록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설립예배 때 주신 말씀이 생명 있는 교회. 보세요. 저는 그 12년 전에 메시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해라. 제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복음강단 생명현장. 그것어요, 그 메시지 안에서 제가 정리해 가지고 제가 붙잡은 거요. 그게 영감인데 그게 내게 힘입니다. 내 능력이고, 내 목회에 하나님 이루실 일입니다. 그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하면서, 늘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주셨던 말씀 붙잡습니다. 복음강단. 오늘도 예배드리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붙잡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원색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12년 전의 메시지인데 지금 응답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뭐냐? 영감을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힘이고 브랜드고 경쟁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매일 하루하루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전도자 오셔서 가지고 세 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전부 다 임직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때마다 붙잡은 말씀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돼라. 로컬과 파라를 살리는 교회가 돼라. 그리고 강북 RUTC, 렘
 넌트운동의 주역 교회가 돼라.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그대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우
 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예요. 전부 다. 에브리바디. 그
 런데 중요한 건 뭘니까? 하나님이 말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루는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서서, 주일 날 주신 말씀과 오늘의 기도수첩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잡은 것, 작은 거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실 걸로 보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
 는 거요. 제가 지은 곡들 중에서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작은 은혜를
 받았어요. 군 생활하면서 구타를 당하다가 영내탈영을 해가지고,
 헌병대 밑에 숨어있다가 인생의 가장 갈급한 시간표 속에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감을 놓치지 않고 쓴 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두움의 그늘들은 파도 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
 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만약 제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이 내게 주신 감동을, 영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렸다면
 이런 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 주시는 그 영감을 내 인생의 가장 전환점이 되어지는 복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오선지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악보화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30개국에 이 찬양이 번역되어져서 불려지고, 미국 찬송가에 곡이 실려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악보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영감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걸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매일 내가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설교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에도 이게 원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날 이미 칠판으로 판서해서 어느 정도 글을 완성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나 1주일 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찾습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모읍니다. 그래서 이 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함께고 동행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영감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뭘니까? 전도를 생각해야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전도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전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5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고 올라간다 했어요. 시편 103편 20절-22절에 우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을 이루려고 천군천사가

돌아다니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감, 말씀에 의한 영감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에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영감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그 영감을 소유해라. 그 영감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 영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있는 응답을 받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환경정리를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24시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치유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본론 | 24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1. 영혼치유

그래서 먼저 영혼치유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의 틀린 집중, 틀린 집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중독과 집착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규모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의 틈, 신명기 28장 7절에 대적의 한 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딱이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
 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니까? 흑암의 존재인 사단
 마귀의 배경 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영적 사망상태에 있
 는 자신과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시
 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
 게 이 구습,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그 구습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 죄, 사망이라는 울무에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게 있습니
 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요, 조금만 말씀 없으면 들어와요. 말
 씬 놓치면 이것이 내 안에 파리를 틀고 주인 행세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저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어느 날 문제가 드
 러나요. 불안, 수치, 두려움, 무능.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뱀
 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를 짓고 하나
 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님과
 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불안해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어났는데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워졌다 했어요. 우리 안에요, 그런 게 생깁
 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사단 마귀에
 게 사로잡히면은 나를 보면서 자꾸 비하해요. 나 자신을 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뭔가 자꾸 죄책감이 들어
 와서 자꾸 숨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것 착각
 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화장실 들어가
 있어도 보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두려움 속에, 그리고 무능과 갈등 속에,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 자꾸 할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자꾸 갈등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는 게 뭘니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후대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문제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부터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문제들의 원인은 대부분이 영적 빈곤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추상적으로 그렇게 뭘 하나님 바라본다면서 교회에 나와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집에 사업장에 잠깐 들렀는데 사업장에 개업을 앞두고 도와준다고 어떤 분이 왔어요. 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꾸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래 하는 게 저게 말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잠깐 좀 이리 와봐라 그랬어요. 교회 목산데 잠깐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갈 것입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저 혼자 얘기를 다 하고 앉았어요. 제가 이제 딱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천국 갈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도 물어봤어요. 자기는 내세가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찾아 보여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던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바쁜지, 또,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

는지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이제 그 분을 보면서 좀 느낀 건 뭐냐 하면은 너무 교회를 자기 신념으로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그러니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빈곤,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믿지 못 하는 게 영적 빈곤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내가, 믿음은 소유거든요.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소유한 것이고, 그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을 쫓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완전 사단 마귀의 밥인 겁니다. 순간 순간마다 사단 마귀가 심방 와 가지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성공과 출세, 거기에 목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죽고 살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달려가는 거예요. 소유와 성취가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아닌데 말이지요. 영적 빈곤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상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폼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뭔가 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언약을 믿음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만 있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정리해서 마음으로 믿고, 붙잡고 있어야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대구 사람 아닙니까? 제가 사투리 씹니까? 안 쓰지요?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스승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묵은디가 많다 하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묵은디가 뭔지 압니까? 눌러 붙어 가지고 딱 이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묵은디 중에 누가 있냐? 장로 아들 딸, 목사 아들 딸. 지 신앙은 별로 없는데 부모 때문에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교회 와 가지고 앉아있기는 한데 전혀 믿음 없어. 눈이 죄송합니다, 동태눈까리 같애. 그래 가지고 눈은 뜨고 있는데 은혜 받는 눈이 아니라. 이래 보면은. 제가 그랬다고요. 오늘 완전히 그 인생 갱신하고 개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소유해라. 말씀이 없어서 오는 문제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사실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현실과 문제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아 복음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빈곤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 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고,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영적 빈곤 상태에서 오래 되고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 모든 영적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빈곤을 해결하려면은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영적 빈곤은 곧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 인생의 근본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내가 진짜 안 믿고 소유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게 내 문제로 부딪히게 하시고, 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몸을 치유하고, 고쳐 낮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사로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그 따까리를 떼버리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봐야 돼요. 문제를 주는 영적배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인 영적문제,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인 지옥배경,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 사단 마귀의 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실적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영적인 그 현장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대한 승리의 열쇠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 내게 있음을 확신할 때에, 흑암세력이 결박되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는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24시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병과 드러난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24시 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고 24시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질병치유(영적인 병)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영적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으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병으로 인해 오게 된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 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만 치유가 되고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걸로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강단말씀을 녹취하는 겁니다.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록하다보면 잡념이 없어지고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틀린 자기 생각에 지속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성구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나의 신앙고백으로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면 잘못된 생각을 주는 흑암이 결박되고 내 영적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포럼을 나누어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믿음으로 전달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들으므로 내 영이 회복되게 돼 있고, 듣는 상대방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된 문제는 한 순간에 금방 해결되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된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개인화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이 뇌에 각인되면 틀린 생각이 바뀌고, 영혼에 각인되면 영적상태가 바뀌므로,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으로 인해 오게 된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무능치유(몸을 살려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 무능에 의한 육신의 무능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영적인 집중을 지속하면 육신의 무능과 질병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5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잠잠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편안하고 그리면서도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삶 속에서 순간 가져도 되고, 그리고 매 순간 가져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니까? 내 영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마저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눈, 코, 귀, 입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기관은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의 건강과도 관계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눈은 말씀을 보고 읽도록, 귀는 말씀을 듣도록, 입은 말씀에 대한 신앙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또,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보고 숨졌다라고 하는데, 숨이 멎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결을 살리고 고르게 만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여러 기능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긴 호흡을 천천히 하면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돼 있고, 세포가 살아나며, 정신이 온전해지고 몸의 건강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호흡을 깊이 하는 것은 영적인 집중과도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 코, 귀, 입 모든 신체기관을 통하여서 말씀집중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육간의 무능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조차 전부 다 말씀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호흡을 편안한 상태에서 긴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모든 병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집중이 내 삶에 24시 계속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모두를 평안한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호흡은 평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적 호흡인 기도가 나의 영적 규모와 신체기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누려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 | 나를 살리는 비밀

말씀 맺겠습니다. 영혼치유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에 순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질병치유와 무능치유는 내 개인이 삶에서 말씀집중을 지속함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

하는 규모와 시스템을 놓치면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개인이 혼자서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인도받을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두고 규모를 갖추어 개인이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해서 집을 나설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긴 호흡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말씀 정리한 것, 또, 기도제목으로 붙잡은 것을 하루 일과와 현장에 적용해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평안하고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낮 시간에도 편안한 호흡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일을 하면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결박되고 현장에 전도의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반드시 주신 말씀을 점검하고 전도와 복음을 선택하며 기준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 밤 시간에는 취침할 때까지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은 아침, 낮, 저녁 전부 다 그리스도께로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런 환경치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가장 큰 응답과 증거는 삶에 평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나의 치유된 영적상태와 규모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로 응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복음 말씀에 집중함으로 영혼치유, 질병치유, 무능치유에 응답을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